

28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023.66 (-732.09)	705.85 (-59.01)		
↓ 금리 (국고채 3년)	↓ 환율 (원·달러)		
3.840 (-0.025)	1460.35 (-8.15)		



코스피 10% 폭락 ‘검은 화요일’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09p(10.84%) 내린 6,023.6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01p(7.72%) 내린 705.8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코스피, 732.09p 하락 6023.66
3개월 여 만에 장중 6000선 붕괴
외국인, 하루 동안 4.9조 순매도
코스피·코스닥 동반 ‘서킷브레이커’

국내 증시가 28일 장중 한때 5900선으로 밀려나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과 더불어 중국이 반도체 노광 장비의 ‘자급자족’ 가능하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도 시장을 짓눌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09포인트(10.84%) 급락한 6023.66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5992.91까지 밀렸다. 외국인이 약 5조원을 팔아치우는(순매도) 동안 기관은 6400억원, 개인이 4조3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 지수는 7.72%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장치)가 발동된 데 이어,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7.58% 급등해 83.43까지 치솟았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발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잡음은 전세계 증시에 쓰나미급 충격을 줬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4.99%, 샌디스크는 11.02%, ASML은 5.80%, 마

이크론은 2.25% 각각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23%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역시 7.47%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95% 하락했다. 다만 가란지수(-4.65%)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증시 상장엔 긴장했다. CXMT는 지난 27일 상장 당일 미국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데다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최대 666억 원(약 14조5000억 원)을 조달했다. 자국 빅테크의 물량 지원 등에 힘입어 메모리 업계에 빠르게 추격해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신화문 기자 godhe@metrosoul.co.kr



metro

임상 청신호… ‘K-백신’ 글로벌 속도

유바이오로직스, RSV 백신 본격개발 후보물질 ‘EuRSV’ 임상 2상 준비 GC녹십자 ‘GC4006A’ 연내 2상 착수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과 임상 성과를 앞세워 백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임상에 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생태계까지 구축하며 K백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바이오로직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백신 개발을 본격화한다. RSV 백신 후보물질 ‘EuRSV’ 임상 1상 결과보고서를 수령하고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EuRSV 임상 1상 결과를 공시했다. 해당 임상에서 EuRSV는 안전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입증했다. 백신 관련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 등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면역원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모든 백신군에서 위약군 대비 RSV를 방어하는 특이 IgG 항체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RSV-A 및 RSV-B에 대한 중화 항체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세포성 면역반응도 효과적으로 유도됐다.

GC녹십자그룹 국산 백신 기술에 다각

도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체 구축한 mRNA-LNP 플랫폼 기반 백신 ‘GC4006A’에 대해 임상 2상 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GC4006A 임상 2상은 만 19세~85세 성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최적 용량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올해 안에 임상 2상 착수, 2027년 하반기 임상 3상 IND 완료, 2028년 최종 품목허가 획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AI 기반 맞춤형 mRNA 구조체 설계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를 주관한다.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45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박과마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GBP410’은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GBP410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포트폴리온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핵심 과제로 오는 2027년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9년 17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폐렴구균 백신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브라질과 방산·핵심광물 등 협력 확대”

李, 브라질 국민방문 ‘정상회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핵심광물과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체육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브라질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상파울루에선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브라질리아의 아우보라다 궁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안보의 핵심축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우선 양국은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산업, 통상협력의 고위급 플랫폼인 경제·통상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회’가 정상회담에 앞서 가동된 만큼,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방산, 항공우주, 핵심 광물, 디지털경제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은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놓고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오픈AI 첫 AI기기, 韓 첫 출시국 기대감

오늘 AI

샘 올트먼, 李 대통령과 협력 논의의 韓 테스트베드 활용 기대감 보여

한국이 글로벌 AI 하드웨어 경쟁의 첫 시험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첫 AI 기기의 한국 테스트베드 활용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다.

스마트폰 시대 글로벌 신제품의 후발 출시국이었던 한국이 AI 시대에는 기술을 가장 먼저 검증하는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올트먼 CEO가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기기에 대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아직 제품 형태와 출시 국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이번 발언을 한국을 AI 기기의 초기 검증 시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그동안 AI 모델과 서비스 중심이던 협력이 AI 하드웨어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그동안 애플 아이폰과 메타 AI 스마트글래스 등 글로벌 IT 기업 신제품의 1차 출시국에서 자주 제외됐다. 그러나 AI 기기는 스마트폰과 경쟁 방식이다. 생산량과 유통망보다 실제 이용자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해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개인화 기능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이 개선된다. 초기 이용자가 많을수록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 AI 기업에는 중요한 실증 시장이 된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성숙 “쫓박촌·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 점검… 장마 피해복구도 서둘러야” /사진 뉴시스
▲통일부 “황강댐 감시 예측 능력 확보…주민 안전 대응체계 충분”

▲송영길 “대통령과 싸움하는 鄭도, 뒷받침만 하는 김도 아냐”
▲박지원 “부동산 해법은 닦치고 짓는 것…임대 주택 많이 지었으면”

▲정청래 “李대통령 시존2 민주정부 구성돼야…제가 할 수 있다”
▲장동혁 “공천은 4년 내내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잠수타는 의원은 안 돼”

AI시대 스마트폰 경쟁력 ‘공급망’... 삼성 ‘약진’·애플 ‘흔들’

비용 절감·부품 수급 중요해져
삼성, 글로벌 파트너 협력 활발
애플, 폴더블폰 출시 지연 가능성

애플이 인공지능(AI)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과 부품 수급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조 경쟁력과 신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공급망 경쟁력이 AI 시대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과 메모리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판매용 제품에 CXMT 메모리를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은 글로벌 D램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부품업체를 상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대로 강한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오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렸고, AI 시대 공급 부족 국면에서는 오히려 협상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과거 가격 협상 전략이 원가 부담과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 맥스 가격이 현행 모델보다 최대 200달러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폰17 프로 맥스의 미국 출시 가격이 1199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모델은 최대 1399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대다. 그동안 애플이 부품 가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왔지만, 공급망 불안과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제조 역량과 대규모 구매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자체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대응력이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우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역시 퀄컴과 엑시노스, 미디어텍 등 복수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정 업체에 의존하기보다 공동 선행 개발과 기술 협력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

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사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기자회견회에서 “현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협력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파트너사들과 모색 중이며 이번 폴드8-폴드8 울트라-플립8 신제품 역시 이러한 협력 기조 아래 준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망 변수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가을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판매 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경우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의 4대3 화면비와 Z 폴드8 울트라, Z 플립8 등 확대된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폴더블 수요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 투자 확대로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스마트폰 업체들도 과거처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자체 부품 조달 역량과 공급망 대응 능력이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미 금리차 다시 벌어지나... 연준 ‘깜짝인상’ 가능성

중동 긴장·유가 변동성 등 변수 작용
워시 의장, 금리 정책기조 이목집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1.00%포인트(p)까지 좁힌 한·미 금리차가 2주 만에 다시 벌어질 갈림길에 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지만 시장이 38%의 ‘깜짝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썬벵도 복잡해졌다.

28일 연준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성명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3시,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은 오전 3시30분 시작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2.75%, 미국은 연 3.50~3.75%다. 미국 금리 상단 기준 격차는 1.0%포인트(p)다. 연준이 0.



지난 5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신임 의장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25%p 올리면 미국 금리는 3.75~4.00%가 되고 격차는 다시 1.25%p로 확대된다. 한은이 지난 16일 인상으로 줄인 격차가 2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지난 17~21일 실시된 로이터 조사에서 전문가 104명 전원이 7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이후 중동 긴장과 유가 변동성

이 커지면서 주요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결정을 ‘점점’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0.25%p 인상 확률은 일주일 전 16%에서 이날 아시아 거래시간에 38%로 뛰었다. 9월 회의까지 한 차례 이상 올릴 확률은 81%다.

지표는 엇갈린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근원물가는 2.6% 올라 모두 전월보다 둔화했다. 신규 고용도 5만7000명 증가에 그쳐 동결론을 뒷받침했다. 반면 5월 개인소비지출(PCI) 물가와 근원 PCI는 각각 4.1%, 3.4%로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주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브렌트유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일시 중단으로 이날 86달러대로 내렸다. 그러나 협상 결렬 시 공습 재개 가능성이 남아 유가 경로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최신 물가지표인 6월 PCI도 FOMC 성명 발표 약 18시간

30분 뒤에야 공개된다. FOMC가 최신 PCI 공개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7월 동결·9월 인상 검토 전망에 힘을 실는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 자체와 함께 표결 구도, 성명 문구, 워시 의장의 9월 인상 언급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차 확대와 달러 강세 압력이 맞물려 한은의 8월 연속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동결 하더라도 9월 인상 신호를 강화하면 한은은 8월 27일 금통위에서 선제 대응할지, 9월 FOMC까지 기다릴지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연준이 9월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 한은이 10월 회의까지 국내 물가와 가계 부채 흐름을 지켜볼 여지가 커진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1면 ‘코스피 10% 폭락...’서 계속

‘AI 거품론’ 다시 고개 반도체기업 주가 급락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39%, 14.65% 하락한 22만원, 155만원에 마감했다.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는 18.33% 급락했다. 대만 증시 시가총액의 40% 넘게 차지하는 TSMC도 1.07% 하락했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증시에 압박을 주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이번 성과는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ASML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잠재했던 AI 거품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500억달러 규모의 자금 보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에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고객사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엔비디아도 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사가는 식의 순환 구조가 AI 수요와 기업가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금리를 ‘깜짝’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도 시장에 부담 요인이다. 프랭크 플라이트 시애틀증권 매크로전략 책임자는 이번 인상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공언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1면 ‘오픈 AI 첫 AI 기기...’서 계속

韓, AI시대 전략거점 부상

AI 업계 관계자는 “AI 기기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AI 플랫폼”이라며 “AI 활용도가 높고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수용하는 시장일수록 테스트베드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국이 테스트베드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AI 생태계, 제조 경쟁력을 꼽는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추고 있으며 신기술 수용 속도도 빠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정부도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AI 활용 기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도 경쟁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AI 기기 핵심 부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는 첫 AI 기기의 국내 선출시 여부보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을 ‘가장 먼저 기술을 검증하는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마트폰 시대 ‘출시를 기다리는 시장’이었던 한국이 AI 시대에는 AI 서비스 소비 시장을 넘어 AI 공급망과 AI 하드웨어를 함께 검증하는 전략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지난해 미거주 주택 172만호 ‘역대최대’

데이터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작년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170만 호를 넘어섰다. 이 같은 미거주 주택 수 증가율은 7.7%로, 전체 주택 증가율인 1.6%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거주 주택’ 수는 전년대비 12만2000호(7.7%) 늘어난 172만2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미거주 주택이 주택종류별 통계에

포함된 1995년 이래로 가장 많다.

미거주 주택은 조사 기준일인 11월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가리킨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뿐 아니라 입주 전 신축주택과 매매·임대·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도 포함한다.

전체 주택에서 미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8.0%에서 8.5%로 0.5%포인트(p) 늘었다.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미거주 주택은 21만 호(13.9%) 증가했다.

주택 종류별 미거주 비중은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이 1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립주택 14.7%, 다세대주택 11.4%, 단독주택 10.3%, 아파트 7.1% 순이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주택 수는 2018만1000호로 전년보다 30만9000호(1.6%) 늘었다. 총주택 수가 2000만 호를 넘어선 것은 1960년 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주택 증가세는 아파트가 이끌었다. 아파트는 1328만9000호로 전년보다 31만5000호(2.4%)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전년보다 0.6%p 커졌다.

지역별 주택 증가율은 인천이 2.9%로 가장 높았다. 또 대전과 충북이 각각 2.3%로 그 뒤를 이었다. 늘어난 주택 수는 경기도 8만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6000호, 인천 3만4000호 순이었다. 전체 주택의 46.8%인 944만5000호는 수도권에 분포했다.

주택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은 1129만호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도 618만호로 전체 주택의 30.6%에 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실거주 지키고, 초고가 더 걷는다… ‘부동산 세제’에 쏠린 눈

내달 초 정부 개편안 발표

1주택자 세 부담 유지·완화 유력
주택 수보다 가액·거주기간 중시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과세 강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등 검토
과세 기준·매물 잠김 방지가 관건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과세 강화’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유지하거나 낮추고 비거주·다주택·초고가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시장에서 ‘초고가’와 ‘실거주’를 가르는 기준과 거래세 완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방안이 유력하다.

◆ 실거주 보호·초고가 과세 강화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 수 중심의 현행 과세 체계를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일정 가액 이하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한 언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7월 말~8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하되 주거복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방안과 초고가 주택의 기준 등을 고민 중이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주택 수보다 보유자산가액을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는 현행 보유세가 명목상 누진성은 강하지만 각종 특례와 공제로 실제 부담은 낮고 납세자별 편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147%, 주택분은 0.122%였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자가 거주 1주택 가구의 60.2%는 전체 가구소득 상위 10%, 74.1%는 상위 20%에 속했다. 이들 가구의 85.9%는 서울에 거주했고 평균 주

택 보유기간은 약 11년이였다.

연구원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더라도 초고가주택에 같은 공제 혜택을 적용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재산세 특례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우선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같은 자산가액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되도록 주택 수별 차등을 줄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 초고가·실거주 어떻게 가르나

문제는 선별 기준이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놓고 2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의 체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직장·학업이나 부모 봉양,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첫 토론회의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에 대해 불가피한 비거주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과세 기준이 가액과 거주기간, 주택 수, 지역별로 촘촘하게 나뉠수록 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과제다. 납세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과 증가 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매물 잠김·임대료 전가 차단해야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으로 향하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비용을 그대로 두면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거나 초고가 기준 바로 아래 가격대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초고가·비거주·투기성 보유를 얼마나 정교하게 가려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거래를 막지 않는 퇴로와 예측 가능한 시행 일정,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매물 잠김과 임대료 전가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홈플러스, 내달 초 영업재개 무산 한 달 안에 회생 가능성 시험대

DIP 집행 뒤 7일 내 재개 추진

67개 핵심점포 축소 운영 계획
상품 조달·현금창출력 확보 관건

홈플러스의 긴급운영자금(DIP) 집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8월 1일로 목표했던 영업재개가 연기됐다. 현재 업계에서 추정하는 영업재개 일자는 8월 7일에서 10일 전후로 예상된다.

영업재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험난하지만 재개 후 현금창출 능력을 한 달 안에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홈플러스의 앞날은 풍전등화나 다름 없는 상태다.

28일 홈플러스가 전날 마트노조와 일반노조를 각각 만나 영업재개 일정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DIP 대출금 실제 집행 후 약 7일 내 영업재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20일 가까스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이 제시했던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개인 자격 2000억 원 전액 보증을 결정하면서 긴급운영자금 대출에 성공했다. 홈플러스는 즉각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불복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홈플러스 노조 또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힘겹게 위기를 넘겼으나 홈플러스가 가야할 길은 멀다. 홈플러스는 오는 9월 4일 회생계획안 인가시한까지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회생절차 핵심인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영업재개가 아닌 생존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8월 10일 전후로 67개 핵심점포를 개점할 때는 미국의 PB상품 전문 슈퍼마켓 ‘트레이더조(Trader Joe’s)’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해 복층매장의 영업면적으로 약 1000평 규모로 축소하고 PB상품과 회전율 높은 생필품 위주로 재편해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납품업체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상품 조달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0개 홈플러스 납품업체의 미납된 평균 납품대금 규모는 7억 7400만원에 달하고 10곳 중 4곳은 5억 원 이상, 2곳은 10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납품업체를 설득해 상품을 진열해야 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상품 조달 단계가 회사 측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발행 및 인수금액 1위
*25년 1~4월 기준, 100억 이상 인수금액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VI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국민통계청 기준
이용고객 1,043만 명(증권사 고객 데이터)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폐쇄형으로 설정시 중도에 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의(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신용)를 담보의 고유자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0~5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



M48 개조에서 K2 수출로 이룬 수주잔고 30조 시대

1

28 현대로템

HYUNDAI
Rotem

경남 창원원의 한 공장에서 미군 전차를 개조하며 출발한 현대로템이 반세기 만에 수주잔고 30조원 시대를 열었다. 1977년 설립 이후 철도차량과 방위산업, 플랜트로 사업을 확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로봇·수소·항공우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은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과 철도 해외 수주에 힘입어 2분기 말 수주잔고 30조4046억원을 기록했다.

◆ M48 전차 개조에서 K2 수출까지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현대로템 창원공장은 옛 현대차량(주)이 1977년 문을 연 곳이다. 현대차량은 국방부가 추진한 미국 M48 전차 개조사업에 참여하며 방산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6·25전쟁 당시 북한 전차에 고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사업 영역은 철도와 플랜트로 빠르게 확대됐다. 1979년 국내 최초의 디젤기관차를 생산·납품했고 같은 해 플랜트 사업에도 진출했다. 1985년에는 한국형 K1 전차를 출고하며 독자적인 전차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철도차량 산업 재편 과정에서 1999년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차량 부문이 통합돼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가 출범했으며, 200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됐다. 프랑스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 KTX-I를 제작했으며 2004년 상업운행을 시작해 국내 고속철도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 2007년에는 사명을 현대로템으로 변경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폴란드 K2 전차 수출을 계기로 방산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기 시작했다. 철도 부문에서도 해외 전동차 공급을 넘어 장기 유지보수와 현지 생산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 수주 기반이 빠르게 확대됐다.

◆ 2분기 매출 13% 증가…수주잔고는 사상 최대

현대로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6060억원, 영업이익 23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3.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7% 감소했다.

외형 성장은 방산·항공우주·로봇·수소 사업을 담당하는 AD&RH 부문이 이끌었

현대차량, 미 M48 개조로 방산 첫발 이후 철도·플랜트로 사업영역 확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6조 기록 AD&RH 부문 외형성장 이끌어 수주잔고 30.4조, 창사來 최대치

K2,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로봇·수소 통합 ‘RH사업부’ 신설 AD&RH사업본부 체제 확대도 RS사업본부, 개편 통해 AI 적용 초점

방산실적, 폴란드 K2 2차 실행계약 신규 수출국 확보 여부에 달려 철도, 모로코 전동차 사업 ‘주목’

다. AD&RH 부문 매출은 91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248억원으로 9.3% 감소했다. 수익성이 높은 폴란드 K2 전차의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국내 방산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1%, 2.2% 증가했다.

RS 부문은 매출 58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7억원으로 35.1% 감소했다. 철도 부문의 외형 확대에도 낮은 수익성은 이어졌다.

수주잔고는 2분기 말 30조404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RS 부문이 19조8670억원으로 전체 수주잔고의 약 65%를 차지했고 AD&RH 부문은 9조8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말 차입금은 1355억원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2조5273억원으로 집계돼 신규 사업과 생산설비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갖췄다.

◆ K2 전차 국내 첫 나토 품질인증…유럽 수출 기반 강화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 지역을 넓히기 위한 품질보증 체계도 갖췄다. 지난 13일 경기도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열고 ‘AQAP-2110’ 인증을 받았다. 국내 기업이 이 인



① 현대로템의 다목적무인차량 HR-세르파와 다족보행로봇의 모습. ② (오른쪽부터) 신상범 기품원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지난 13일 현대로템 의왕 본사에서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③ (왼쪽부터)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과 모하메드 라비 클리 모로코 철도청장이 지난 6월 18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계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④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이음. /현대로템

증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AQAP-2110은 나토 회원국이 방산물자를 조달할 때 적용하는 품질보증 표준이다. 설계와 개발, 제조 단계에서 갖춰야 할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나토 권역 방산물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주요 자격요건으로 활용된다.

인증 대상에는 K2 전차뿐 아니라 구난 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계열전차도 포함됐다. 현대로템은 2024년부터 5개 본부가 참여하는 사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며 인증을 준비해 왔다. 이번 인증으로 폴란드에 이어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K2 전차와 계열전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로봇·수소 조직 통합…피지컬 AI 대응 체계 구축

현대로템은 기존 사업과 미래 기술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일 조직 개편도



① 현대로템의 다목적무인차량 HR-세르파와 다족보행로봇의 모습. ② (오른쪽부터) 신상범 기품원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지난 13일 현대로템 의왕 본사에서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③ (왼쪽부터)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과 모하메드 라비 클리 모로코 철도청장이 지난 6월 18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계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④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이음. /현대로템

단행했다. 방산과 철도, 예코플랜트 등에 분산돼 있던 로봇·수소 조직을 통합해 ‘RH사업부’를 신설하고 로봇AX사업실과 수소에너지사업실을 산하에 배치했다.

방산 부문인 디펜스솔루션사업본부는 ‘AD&RH사업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1사업부·4실 체제에서 2사업부·6실 체제로 확대했다. 해외 방산 사업을 담당하던 조직은 항공우주 기능을 더한 ‘AD글로벌사업부’로 개편했다.

철도 부문인 레일솔루션사업본부는 ‘R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내 공공발주와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던 국내사업단은 ‘RS고객경험사업부’로 격상하고 운영·유지보수 조직도 별도 사업실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은 전차와 철도차량, 물류설비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파’에 AI 기반 자율주행과 군집 제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예코플랜트 부문에서는 항만 무인 이송 차량을 비롯한 스마트 물류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소, 무인화·AI,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핵심 기술을 사업 모델 전반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폴란드 2차 물량 생산 앞뒤…두 번째 K2 도입국 확보가 관건

향후 방산 실적은 폴란드 K2 전차 2차 실행계약(EC2)의 매출 인식 시기와 신규 수출국 확보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EC2 물량은 K2GF 116대와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L 64대로 구성됐다. K2GF는 2026~2027년, K2PL은 2028~2030년 인도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진행률 등을 고려해 K2PL 관련 매출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나눠 반영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정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대했던 수주 사업들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정 이 지연된 것”이라며 “폴란드 EC2 물량 일부가 2028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중장기 성장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에 이어 후속 수출국 확보 여부도 향후 방산 실적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페루에서는 지난해 12월 K2 전차 54대와 K808차량형장갑차 141대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가 체결됐다. 오는 28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후속 이행계약 협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라크 사업은 내각 구성 지연 등 현지 정치 일정의 영향으로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루마니아도 차세대 전차 216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찰과 사업자 선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철도 부문에서는 모로코 전동차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더해질 전망이다. 약 2조2027억원 규모의 사업은 설계·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생산과 매출 인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면 방산에 집중된 실적 구조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수주잔고를 감안하면 단기적인 수익성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폴란드 후속 계약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외형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페루·이라크·루마니아 등 추가 K2 도입국 확보 여부가 향후 매출과 이익의 성장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1982



금융보국
금융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

나라를 위한 은행

대중의 은행

서로 돕는 은행

믿음직한 은행

가장 편리한 은행

세계 속의 은행

젊은 세대의 은행



신한금융그룹 창업 44주년

**금융보국의 창업이념,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2026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송영길 ‘리더십 교체’·정청래 ‘진보 결집’·김민석 ‘투표율’

막 오른 민주당 당대표 경선 ‘승부처’ 충청권 표심 향해 촉각 첫날 서버 오류, 투표시간 연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이 28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송영길·정청래 후보는 충청을, 김민석 후보는 경남을 찾아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열중했다.

민주당은 28~29일 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의 뜻을 모은다. 첫 이틀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충청권 권리당원은 오는 30~31일 ARS투표를 통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의 투표를 70%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해 당 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8월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에서, 8월2일 울산·부산·경남에서 합동연설회를 치른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후보는 이날 당 대표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왼쪽부터)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는 충주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고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너무 저조한 결과가 나왔고 충주를 비롯해 서울시장, 부산 북구갑, 평택이나 경남 (등) 꼭 이겨야 할 곳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더십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아니겠나.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당원 여러분이 결단해줄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형이 나와서 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



상된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 있는 당대표 얼굴을 정청래로 할 것인지, 송영길로 할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부연했다.

정청래 후보는 세종시 해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 당원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즌2’ 민주 정부가 구성돼야 AI(인공지능) 문명사적 대변화가 계승되고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운을 띄



웠다. 이어 “그러려면 우리 내부부터 단결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총단결하고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내란 직후에 치러지는 대선도 이 대통령이 50%를 못 넘었다”며 “그래서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 빨리 합당을 추진하고 다른 진보 민주 세력과 손잡고 연대해 민주당을 더 키워 총선 승리하고 대선 때는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는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를 찾아 정 후보의 고향인 충청권에

서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것을 거론하며 “혹자는 이번 선거의 시작이 특정 후보와 연고가 좀 강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강한 지역에서 끝난다는 것 때문에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마디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는다.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이번 당원투표와 전당대회 목표는 모든 당원들이 전원 투표하는, 그래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에, 당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첫날, 투표 사이트 서버 오류로 온라인 투표가 한 시간 가량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은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시간만큼, 충북과 충남 권리당원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정식 “내년 중후반 개헌안 합의 목표”

국회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현직 대통령 연임도 국민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형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두고선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10차 개헌을 매듭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장은 “개헌 문제가 정략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가 개입됐던 것은 특히 선거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를 앞두고 논의가 이뤄져서 그랬던 것”이라며 “내년이 선거가 없는 시점이어서 개헌을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과 로드맵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에 준비시키고 적정 시점에 여야와 함께 개헌특위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언제쯤 출범할 지 단정할 수 없지만, 내년 중후반 최종 개헌안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특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의 주요 반대 이유로 거론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의 처리 목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남용의 폐해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원칙인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가 제기됐고 반드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를 여야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저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를 보고 형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노동자 출신’ 한-브라질 정상, 연대 다짐

李 “노동자의 정체성 잃지 말아야”

브라질을 국민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아나시우 톨라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중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6주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소년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거론하며 “저나 톨라 대통령께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 궁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 서두에서 “(톨라) 대통령님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며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왼팔을 다쳐서 현재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 방문은 지난 2월 톨라 대통령의 국민 방한으로부터 5개월 만의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삶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욱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또 28일부터 상파울루를 방문하는 데 대해 “(톨라)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일했던 급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볼 생각”이라며 “대통령께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또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그곳에서 대통령의 꿈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산업기술·우주·에너지 등 MOU 7건 체결

》1면 ‘李, 브라질 국민방문’서 계속

이에 대해 톨라 대통령은 “실무그룹을 설치해 양국의 민감한 부분들을 발굴할 것”이라며 “브라질의 부통령을 지정해서 실무그룹의 장을 맡도록 했다. 이 대통령께서도 정책실장을 실무단의 대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방산과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정부의 철학을 톨라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톨라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MOU는 모두 7건이다. 구체적인 MOU에 서명하고 영화, 사이버보안 협력 등 2건은 별도 서명했다.

회담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에서 교민들과 오전 간담회를 한 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행사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등 한국 기업인이 참석한다. /서예진 기자

국힘, 조정태·권영진·진중오 징계 착수

“엄정 징계” vs “기회 줘야” 이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조정태(6선·부산 사하을),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중오(초선·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28일 당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적식 원내대표의 먹살을 잡는 등 해위로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인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같은당 박덕흠 부의장 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도운 것이 징계 사유로 거론된다.

특히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부친 세 의원은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된다. 권 의원은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이고, 조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계(친한동훈계)

로 여겨진다.

당 내부에선 이들의 징계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권 의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책임은 엄격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정당은 존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희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보인 언행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은행 거래부터
주식 투자까지 한번에

신한 super SOL만의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

SOL LINK

슈퍼SOL에서 SOL LINK로 주식거래하고
테슬라 당첨의 기회까지
(조건 충족 시, ~9/30)



SOL LINK
개설하기



이벤트
바로가기

[공통]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물 유효기일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신한은행]** ※SOL LINK는 은행 계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 업무도 가능한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복합연계 상품입니다. ※신한 SOL LINK는 만 19세이상 국민인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0.1% (2026.6.17 현재, 세전),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에 문의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 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 ~ 0.1891639%(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제휴채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입니다. ※테슬라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문의는 신한투자증권(02-3772-2220,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에 문의 바랍니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고객 및 당첨고객 제외)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1206호(2026.07.01 ~ 2026.09.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172호 (2026.07.01 ~ 2027.06.30)



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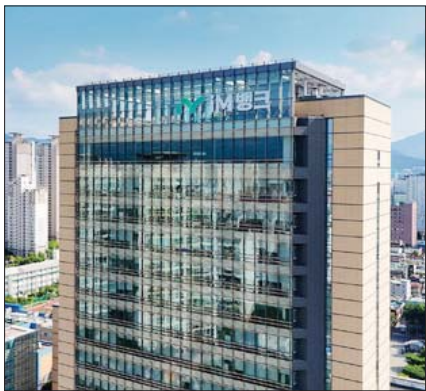


신한투자증권

거점점포·PRM ‘투 트랙’… iM뱅크, 지역·상생 금융 ‘순항’

〈기업금융전문가〉

하반기 목표 ‘속도감·차별성 전략’
신규출점 지역에 ‘거점점포’ 설치
‘기업 특화’ 중기·벤처 적극 투자
은행 퇴직자 1인 지점장 활용 ‘PRM’
1인당 대출 취급액 일반행원의 3배



iM뱅크가 지역기반 위주에서 수도권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구 iM뱅크 제1본점. /iM뱅크

iM뱅크의 ‘투 트랙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 거점점포와 PRM(기업금융전문가)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에선 시중은행이 공략하지 못했던 니치마켓(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과 상생 금융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의 하반기 경영 목표는 ‘속도감 있고 차별성 있는 전략’이다. ‘지역에 거점을 둔 시중은행’이란 iM뱅크만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지난 2024년 6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재출범 당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뱅크’를 전략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iM뱅크는 매출 성장 동력을 전국단위 영업망 확대에서 찾고 있다. 인구 유출·산업 쇠퇴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려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중심의 비대면 금융을 통해 경쟁력 높은 소매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신규 출점 지역에서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거점점포’를 설치해 기존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한다. 주요 거점점포는 서울 강남·여의도, 마곡, 가산디지털, 경기 판교, 동탄 등이다.

지점장급 시중은행 퇴직자를 1인 지점장으로 활용하는 ‘PRM(기업금융전문가)’ 제도도 주요한 성장 전략이다. PRM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확보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한다. 지난해 iM뱅크 소속 PRM의 1인당 대출 취급액은 일반행원 대비 3배 가량 많았고, 연체율은 0.13% 수준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각 은행들도 PRM과 비슷한 1인 지점

장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기존 점포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만큼 1인 지점장 제도 활용 시 기존 영업망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방은행들은 거점지역 이외 지역의 영업에 한계가 있다. 반면 iM뱅크는 영업지역 제한이 없고, 영업망도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구축된 만큼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iM뱅크 한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들은 1인 지점장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영업 구역에 제한이 있는 지방은행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한 PRM 제도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iM뱅크의 전략 목표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iM뱅크는 신규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서 확보했다. 수도권 자산 규모만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총자산의 20%가량이다. 기존 거점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과의 공동 성장도 핵심 가치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제1·2 본점을 대구에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영업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를 대구에서 유지 중이다. iM뱅크가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 중심의 영업 방침을 중요시 하는 것은 기존 매출의 대부분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하고 지역 내에서의 입지도 공고한 만큼,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수도권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들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수도권으로 옮겨가지만, iM뱅크는 반대로 전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대구·경북으로 가져온다”라면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에 거점을 둔 시중은행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본업 외형성장… 카드사, 상반기 실적 ‘전조’

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 등
대부분 카드사, 순익 성장세 보여
삼성카드 홀로 순익 7.5% 감소

주요 카드사들이 상반기에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신용카드 사업 중심의 본업 외형이 성장하면서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확대가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8일 실적 공시에 따르면 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순익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삼성카드는 상위권 카드사 가운데 홀로 순이익이 감소했다.

신한카드가 2.8% 증가한 25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순이익은 각각 2189억원, 1852억원으로 20.7%, 11.9% 증가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도 1259억원, 945억원으로 각각 14.2%, 24.2% 순이익이 늘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신용판매 취급액 등 본업 외형을 넓히며 영업 수익성을 개선

한 데 따른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는 상반기 신용판매 취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늘어난 123조4096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카드 신용판매 취급액 역시 91조원으로 같은 기간 8.1% 늘었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이용 금액이 늘면서 비이자이익이 증가했다. 특히, 순수수료 이익이 3439억원에서 3721억원으로 확대됐다. 우리카드도 고객 기반이 확대되면서 신용판매 매출이 7조4620억원에서 10조59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나카드 역시 개인 신용판매·체크카드 등 결제성 취급액이 성장했다. 여기에 트래블카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부분의 시장 지배력까지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본업 외형을 넓히고도 순익을 올리지 못한 곳도 있다. 삼성카드는 상반기 신용판매 취급고가 86조 8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어 외형 성장에 성공했으나 순이익은 3105억원으로 7.5% 감소했다.

규모 확대와 조달금리 상승 여파로 금

융비용이 2802억원에서 3300억원으로 17.8% 급증하며 수익성을 상쇄한 탓이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으로 인한 일회성 인건비가 발생하면서 판매관리비가 8%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삼성카드가 겪은 조달비용 부담이 카드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업계 호실적이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분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오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등 카드사 경영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하반기는 국내 금리의 추가 인상 등 조달비용 상승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환경에 민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GS건설 직원 및 사업 관계자들이 호주 NEL 도로공사 현장에서 TBM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GS건설

GS건설, 호주 멜버른 NEL 터널굴착 완료

2028년 말 개통목표 후속공사 계획

GS건설이 호주 인프라 시장 첫 진출 사업인 ‘노스이스트링크(NEL)’ 도로공사의 터널 굴착을 완료했다. 약 10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후속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GS건설은 호주 멜버른 NEL 도로공사의 총연장 6.5km 터널 가운데 터널굴착기(TBM)로 시공하는 구간의 굴진(굴 모양을 이루면서 땅을 파 들어감)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TBM은 대형 원통형 장비가 지반을 파내는 동시에 터널 벽체를 설치하는 장비다. GS건설은 이번 굴착 완료를 통해 장거리 터널 시공과 대형 인프라 사업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NEL 도로공사는 멜버른 북동부의 M

80 순환도로와 동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GS건설은 스파크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자이자 설계·시공 합작법인 참여사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2021년 스파크 컨소시엄과 도로공사 패키지 민관합작투자(PPP)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수주 당시 환율 기준 약 10조 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GS건설의 공사 수행 금액은 약 2조8000억원이다. GS건설의 해외 단일 사업 중 2009년 아랍에미리트 플랜트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GS건설은 터널 굴착에 이어 터널 내부 도로 구조물과 전기·조명·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도로 연결부 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 말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미래에셋생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

임직원 봉사단, 노인복지 증진 힘써

미래에셋생명은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마포구 내 취약지역 경로당을 찾아 함께하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부서별 봉사단을 편성해 모든 임직원이 매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함께하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는 경로당 어르신과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의 교류로 세대 통합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서강해모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세계 명화 입체 모자이크 꾸미기를 진행하며 답소를 나누고 추억을 쌓았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미래에셋생명이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마포구 내 취약지역 경로당을 찾아 ‘함께하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생명

하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기업 핵심가치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험업의 본질인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신한금융그룹 청년 AI 교육과정 운영

신한금융그룹이 금융IT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한금융은 다음 달 4일까지 ‘신한 커리어넥스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커리어넥스트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금융IT 인재양성 과정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금융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룹의 금융·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했다.

교육은 신한DS가 맡는다. 금융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운영 경험과 금융권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IT와 AI 에이전트 개발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금융IT와 AI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총 40명을 선발해 3개월간 교육한다.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3억 달러 포모사본드 발행

역대 최저수준 가산금리 적용

하나은행이 약 7년 만에 대만 포모사본드 시장에 복귀해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3억달러 규모의 외화 조달에 성공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5년 만기 포모사본드(Formosa Bond) 3억달러를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19년 6월 4억달러 규모의 포모사본드를 발행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특히 대만 채권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가산금리 70bp(1bp=

0.01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에서 발행이 이뤄졌다.

발행금리는 최초 제시금리인 SOFR(담보부 익일물 금리)+95bp에서 27bp 낮아진 SOFR+68bp로 확정됐다. 채권은 5년 만기 변동금리부채권(FRN)으로 발행됐다.

포모사본드는 해외 기관이 대만 자본시장에서 대만달러가 아닌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소수의 핵심 투자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G이노텍-TDK, ‘피지컬 AI’ 동맹 비전·촉각 등 센싱솔루션 공동개발

피지컬 AI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내년 촉각 센싱모듈 개발완료 목표
문혁수 사장 “로봇 센싱시장 선점”

LG이노텍이 일본 전자부품 기업 TDK와 손잡고 피지컬 AI(인공지능) 핵심 부품 개발에 나선다.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싱을 넘어 ‘피부’ 역할의 촉각 센싱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차세대 로봇 센싱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이노텍은 TDK와 피지컬 AI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LG이노텍의 광학 및 조정밀 설계 기술과 TDK의 센서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비전 센싱 모듈과 촉각 센싱 모듈 등 피지컬 AI용 센싱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TDK는 관성·위치·압력·온도 등 다양한 센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이다.

양사는 비전 센싱 모듈에 관성·위치 센서와 마이크 등을 적용해 기존보다 인식 성능을 높인 ‘차세대 비전 센싱 모듈’을



(왼쪽부터)슈이치 하시야마 TDK CTO, 민준 LG이노텍 CTO가 서울 강서구 마곡 소재 LG이노텍 본사에서 열린 ‘피지컬 AI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이노텍

개발할 계획이다. 이 모듈은 시각 정보뿐 아니라 움직임과 방향, 음향 데이터를 함께 처리해 로봇의 주변 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며, 로봇 제조사는 여러 센서를 하나의 모듈로 공급받아 설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수십여 종의 센서 기술을 보유한 TDK와의 시너지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비전 센싱 모듈’의 형태는 무궁무진하다”며 “먼저 관

성 센서를 탑재한 모듈을 2027년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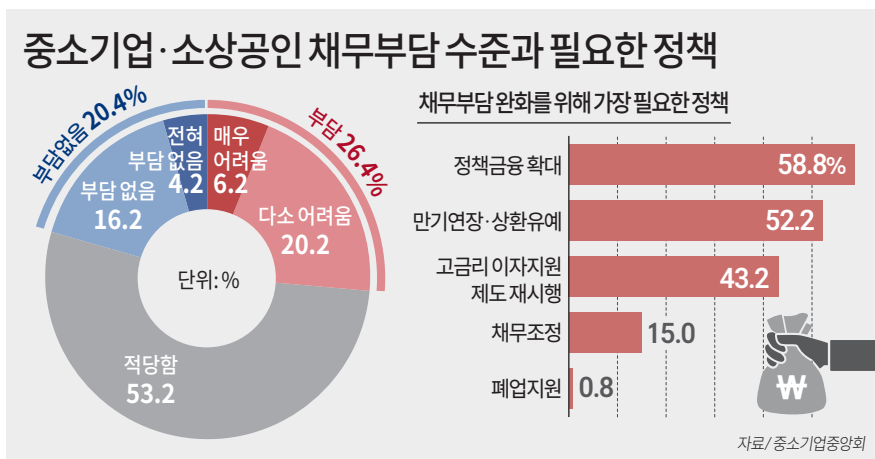
양사는 2027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촉각 센싱 모듈도 공동 개발한다. 이 모듈은 로봇 손뿐 아니라 팔과 몸통 등에 장착돼 접촉 여부와 압력을 감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LG이노텍의 모듈화·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과 TDK의 초정밀 촉각 센싱 기술을 결합해 고성능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에는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처리 기술 등 다양한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석·처리하는 기술을 비롯, 다양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로봇 분야에서 수많은 센서를 결합한 ‘멀티 센싱’이 주목받을 것이며, 여러 종류의 센서를 보유한 TDK와의 협력을 통해 로봇 핵심 부품 생태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로봇의 눈과 손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피지컬 AI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채무에 허덕이는 中企·소상공인 2곳 중 1곳 “사업 2년도 못 버텨”

중기중앙회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
4곳 중 1곳 “원리금 상환 수준 부담”

중소기업, 소상공인 4곳 중 1곳은 현재의 빚(채무)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2곳 중 1곳은 지금의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경우 2년 이상 버티는 게 ‘힘들다’고 답했다. ‘정책금융 확대’와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가장 절실한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들어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6.4%는 현재의 원리금 상환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없음’은 20.4%였고, ‘적당하다’는 53.2%였다. 4곳 중 1곳은 채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수준의 채무부담이 지속될 경우 ‘사업 영위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5.5%가 ‘2년 미만’을 꼽았다. 전체 응답의 23.5%는 ‘1년 미만’이라고 답했다. ‘2년 이상’을 버틸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은 54.5%였다.

빚이 늘어난 주요 이유(복수 응답)로는 ‘매출감소 및 영업이익 악화’가 67.8%로 1순위였다. 이외에 ‘높은 대출금리’(37.9%), ‘원부자재 가격 상승’

(34.8%) 등의 원인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주요 창구는 ‘제1금융권’이 94.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정책자금’(12.2%), ‘제2금융권’(3%) 순이었다.

이용하고 있는 대출 평균 금리 수준은 정책자금이 3.2%로 가장 낮았고, 제1금융권(4.5%), 제2금융권(6.1%), 보험사·카드사·캐피탈등(7.2%) 등 순으로 높아졌다. 특히 사금융 금리는 평균 11.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은 57.8%가 ‘5억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4곳 중 1곳(24.8%)은 보유하고 있는 대출 총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구책(복수응답)으로 ▲투자·인건비 축소 등 자체비용 절감(58.3%) ▲정책자금 활용(20.5%) ▲저금리 대환대출(15.9%)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응방안이 ‘없다’는 곳도 22%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이민경 정책총괄실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율적인 상생 금융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中 슬래브 수입 급증… 철강업계 희비 엇갈려

재압연업체, 조달 선택지 활용
일관제철소, 가격경쟁 부담 커져

중국산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산 슬래브 수입이 급증했다. 중국산 슬래브가 국내 업체들의 조달 선택지로 활용되면서 재압연업체는 원재료 선택 폭이 넓어진 반면, 일관제철소는 가격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슬래브 수입량은 25만439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9% 증가하며 전체 수입의 51.6%를 차지했다. 기존 최대 수입국이던 일본(23만5754톤)을 제친 수치다. 반면 일본산을 비롯한 타국산 수입이 줄면서 전체 슬래브 수입량은 49만3286톤으로 12.6% 감소했다. 전체 물량은 축소됐으나 수입 구조는 중국산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슬래브는 쇠물을 굳힌 판 모양의 철강 반제품으로, 가열·압연을 거쳐 선박·건

설·자동차용 후판과 열연강판으로 재가공된다. 철근·형강 등 봉형강 제품에는 빌릿이 원료로 쓰인다.

업계에서는 완제품 중심의 반덤핑 조치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후판에 27.91~34.10%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도 최대 33%대의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슬래브는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 완제품 수입은 감소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378만805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줄었다고 집계했다. 국내 철강재 전체 수입량 역시 637만6356톤으로 1.7% 줄어 2002년 상반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슬래브는 일반 유통업체를 거치기보다 제철소나 재압연업체가 해외 제철사와 직접 계약해 공정에 바로 투입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고로가 없어 외부 조달에 의존하는 동국제강 등이 주요 수입처로 꼽힌다.

다. 동국제강은 그간 일본산을 주로 들여왔으나 조건에 따라 중국산 등을 병행 활용하며 조달 다변화를 이뤄왔다고 알려졌다.

결국 이번 중국산 수입 급증은 재압연업체가 기존에 확보해 둔 조달 선택지 중 중국산을 적극 활용한 결과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전체 슬래브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한 만큼 시장 전반의 수급 구조가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중국산 선호 흐름이 지속될 경우 슬래브를 직접 생산하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일관제철소에는 가격 경쟁 압박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운 철강산업연구원은 “슬래브를 직접 생산하는 제철소는 중국산 수입이 지속될 경우 가격 경쟁 심화로 판매가와 실적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동국제강 같은 재압연업체에는 기존 조달 선택지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생산 구조에 따른 개별 영향을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현대무백스,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

韓-美 조선업 협력 뒷받침

현대무백스가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함께 조선소의 초대형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책 연구개발(R&D)을 주관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해 한미 조선업 협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현대무백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추진하는 ‘2026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

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초대형 선박 블록 운반용 지능형 자율주행 트랜스포터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수행 기간은 42개월이며 정부 지원 규모는 190억원이다.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사와 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현대무백스는 초중량 자율주행 이송로봇을 비롯해 통합관제·가상주행 검증 기

술과 인공지능(AI) 기반 블록 운반 안정성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개발 중인 10톤 이상급 초대형·조정밀 자율주행 모바일로봇(AMR) 기술도 연계해 조선소 블록 운반 공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현대무백스 관계자는 “이번 과제를 계기로 AI와 로봇을 접목한 자율운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국 현지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HD현대일렉, 2분기 매출·영업이익 ‘경충’

매출 1조 1418억, 영업이익 2870억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 전력변압기와 국내 반도체용 배전기기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8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37.3%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5.1%로 전년 동기보다 2.0%포인트 상

승했다.

2분기 수주액은 1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6%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수주액은 32억3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84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9.6% 늘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전력 수요가 배전·회전기기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가온전선, 美 빅테크 발전소에 케이블 공급

500억 규모 계약… 후속 사업 기대

가온전선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체 발전소 구축 사업에 배전 케이블을 처음 공급하며 미국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가온전선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 A사의 발전소 구축 사업에 약 500억원 규모의 배전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직접 체결한 첫 발전소용 케이블 공급 계약인 만큼 향후 후속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송전뿐 아니라 배전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배전 케이블 시장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케이블과 전력기기를 함께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AI센터 규제 빗장 풀린다… 통신 3사, 인프라 경쟁 본격화

AIDC 특별법 2027년 시행
인허가 통합·지방 전력평가 면제

SKT, 2029년까지 5GW 구축
KT, 5년간 1GW·5조 투자
LG U+, 파주 0.2GW 센터 건설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통신 3사의 AI 인프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 규제 완화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할 자금력과 장기 고객 확보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이 2027년 2월 시행된다.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 기반 조성 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 9일 한국과학기술사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현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가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허가 통합 창구 역할을 맡아 관계 부처 협의를 일괄 진행한다. 각 부처가 정해진 기간 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 의무적으로 받

아야 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비수도권에서는 면제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W 이상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특례도 적

용된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되면서 구축 기간을 수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에 맞춰 통신 3사의 투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2029년까지 총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영남권과 서남권 등에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다.

KT는 정부 메가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체 투자로 AI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박윤영 KT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총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5조원을 투입해 데이터센터를 25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구축 지역과 단계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경기 파주에 0.2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평촌메가센터(0.165GW)보다 큰 규모다. 지난 6월 준공한 1동은 기업 고객과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대규모 투자비는 여전히 부담이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와 대규모 전력·냉각 설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7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규제 완화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장기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능력이 향후 AI 인프라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치가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카카오, '카나나-2'로 온디바이스 AI 승부

허깅페이스에 경량모델 4종 공개
한국어 처리 효율 30% 이상 향상
상업 활용 열어 AI 생태계 확대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Kanana)'의 경량 언어모델(S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온디바이스 AI 경쟁력 강화와 국내 AI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는 28일 글로벌 AI 플랫폼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구동 가능한 '카나나-2' 경량 언어모델(SLM) 4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모델은 ▲Kanana-2-1.3B-base ▲Kanana-2-1.3B-instruct ▲Kanana-2-3B-base ▲Kanana-2-3B-instruct 등이다.

최근 AI 업계에서는 대형 언어모델(LL

M)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개인용 PC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경량 언어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경량 오픈소스 모델 공개를 확대하는 추세다.

카카오는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경량 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카나나 인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 요약·통화 요약, AI 국민비서 등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모델은 작은 규모에도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유사 규모의 최신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한국어·영어·지식·수학·코드 등 주요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Kanana-2-1.3B-instruct와 함께 개발한 0.9B급 모델은 대화, 코드, 수

학, 지시이행, 톨 호출 등 실제 서비스 활용 성능에서도 글로벌 모델인 Qwen, Gemin 등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토크나이저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한국어 처리 효율을 30% 이상 높였으며, 같은 문장을 더 적은 토큰으로 처리해 연산 비용과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온디바이스 환경 최적화를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Sliding Window Attention) 구조도 적용했다. 최대 3만2000토큰 길이의 대화에서도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72.7% 줄이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이번 모델을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한 카나나 오픈 라이선스(Kanana Open License)로 배포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자율주행 일상화, 제도·수용성이 관건

국회서 자율주행 정책 세미나 개최
안전책임·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강조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안전 책임과 서비스 운영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핵심 과제로 꼽혔다. 연태영 의원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과거지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은 국내외 자율주행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웨이모와 테슬라 등 민간 기업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주도하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르

게 일상에 접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공공서비스 중심의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2027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드웨어 중심 투자에 비해 데이터와 모델 개발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AI부문 부사장은 자율주행 시대에는 기술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자율주행차는 혼자 달리지만 서비스는 함께 만든다"며 "이용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LX하우시스 뷰프레임 창호.

LX하우시스

녹색상품 '3관왕' 쾌거

LX하우시스의 주요 인테리어 제품이 '2026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 LX하우시스는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28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LX Z:IN(LX지인) 뷰프레임 창호 ▲에디톤 바닥재·벽장재 ▲PF보드 단열재 3개 제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X하우시스의 벽장재와 단열재는 13번째, 바닥재는 12번째, 창호는 11번째로 녹색상품 제품에 각각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노동성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 5번째)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를 방문해 루이즈 카를로스 두트라(Luiz Carlos Dutra)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 회장(왼쪽 4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K-뷰티,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중기부,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협력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K-뷰티 진출·수출 추가 모색에 나섰다. 중기부는 노동성 제1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와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를 잇따라 방문해 K-뷰티 중소기업의 브라질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라질은 손꼽히는 뷰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K-팝, K-드라마 인기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늘며 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가진 이점을 K-뷰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 차관은 회원사들이 브라질 화장품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와 원료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의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브라질의 천연자원과 우리 기술력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수출규제 대응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미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는 우리 중소 브랜드사들의 플랫폼 입점과 홍보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폐업 후 다시 찾은 노란우산 19만명 육박

6월 말 재가입자 18만8000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의 장정 때문에 재가입하는 인원이 1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앞서 받은 폐업공제금을 통해 제도전에 나서는 등 노란우산이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재가입자는 약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의 주요 혜택은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및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이다. 가입자들은 부금 납부

기간에는 사업소득 공제를 받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재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은 '3년 미만'이 54.1%,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로 대부분이 가입 후 5년 이내에 공제금을 받았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 월 평균 부금액은 28만원으로 집계됐다. 재가입 후 월 부금액은 30만3000원으로 8% 가량 늘었다.

업종별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숙박·음식업의 재가입률이 약 9%p 높았다.

/김승호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탄탄한 펀더멘탈에도… 투심 짓누르는 ‘AI·반도체 노이즈’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최대실적’
중 CXMT 약진에 경쟁격화 가능성
엔비디아 순환 금융 거래 우려 제기

外人 이탈, 레버리지ETF 관리해야
국면전환 시기… 단기 반등 전망

#.30대 맞벌이 회사원 최모(34)씨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현금 1억6000만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1만 돌파를 기대하며 지난달 1600만원이 든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더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때 35%였던 수익률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으로 최근 2%로 뚝 떨어졌다. 최씨는 “코스피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에 탄 기분이다”라며 결혼 축의금, 퇴직금을 다 모아 투자한 거라 손실을 볼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자영업자 박모(51·여)씨는 “반도체 ETF 등에 총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최대 60%까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가격이 계속 변동하다 최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기업 실적은 고무적이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 불안한 마음이 크다. 주가가 빨리 오면 만큼 타격도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7월 성적표는 참담했다.
‘-40% 대 -34.13%.’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는 7월 들어 급락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에 따른 경쟁 심화와 중국 반도체 노광장비의 ‘자급자족’ 가능성,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노이즈가 투자심리를 짓누른 영향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의 추격과 국내 반도체주의 동반 약세를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세 조정을 맞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면역력 자체가 약해진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 시장 흔드는 반도체·AI 노이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만 보서는 추락하는 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16일(현지 시간) 2분기(4~6월) 순이익이 7066억 대만달러(약 32조5000억 원)로 1년 전보다 77%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등 전 세계 민간 기업을 통틀어 분기 영업이익 최대 기록을 새로 쓴 것이었다. 증권가가 예상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도 각각 84조597억원, 64조889억원이다.

그런데도 주가는 흔들리고 있다. 이날 일본 증시에서 키옥시아는 18.33%(-1만 엔, 하한가) 하락했다. 대만의 TSMC는

2.98% 떨어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18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36만2500원)를 찍은 뒤 이날 2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가 대비 39.31% 내린 수치다. SK하이닉스도 최고가 298만7000원에 달했던 때와 비교해 48.01% 떨어진 155만3000원으로 이날 장을 마감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공급 과잉과 AI 인프라 투자 둔화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심이 탓이다. 엔비디아의 오픈AI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순환 금융거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에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고객사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사가는 식의 순환 구조가 AI 수요와 기업가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 차세대 클라우드 기업 코어워브

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해 풋옵션 등 파생상품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인프라 투자 둔화 가능성도 최근 부각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가 1년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역사회 반대 등에 밀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취소·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주요 반도체 주식의 매도를 권했다.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된 만큼 차익을 실현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리사 샬럿 모건스탠리 웰스메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는 “투자자들이 주요 반도체 제조사의 주가를 극단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의 약진과 기술 성장은 경쟁 격화(공급 과잉)와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펀더멘탈 탄탄, 시장 불안은 불가피

하지만 아직까지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 구글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연간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0억~1900억 달러에서 1950억~2050억 달러로 150억 달러 높였다. 미국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26일(현지시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이 2030년 2460억달러(약 36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약 350억달러(약 52조원) 수준에서 7배로 커진다는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와 AI발 시장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토머스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날 CNBC에 “기술주 영역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투자자들이 자금을 재배분하고 싶어 할지 등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와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장밋빛만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한국 증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 증시의 변동성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지적했다. WSJ은 “파티가 끝나면 손실은 대부분 현지 개인투자자에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미들의 욕심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정책 실패도 시장 불안을 키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 증시에 대해 “카지노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두고 “도박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팔자’도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66조 769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이 88.5%를 차지했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자체 노광장비 개발, 이란 국지전, 표면화된 금리 인상 논의 등은 추가 악재가 아니라 국면 전환의 신호”라며 “디스크가 드러날수록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시장은 오히려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이동한다”고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상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융위 “레버리지 과열 땐 개인별 투자제한 등 고려”

31일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
수요 진정 안 되면 추가규제 시행 계획
투자 비중 전체 20% 제한 등 검토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포함한 추가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31일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 시행 이후에도 투자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주재로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 투자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 확대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 상황을 점검해 추가 보완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기본예탁금을 기존 대용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사전교육은 1시간 확대하고 평가를 강화하며, 과리율 관리도 다음 달 19일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최소 매매단위 확대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강화 효과를 면밀히 점검한 뒤에도 투자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전체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예시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장 운영 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에는 장마감 직전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동성 공급(LP)을 담당하는 증권사에는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 노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오는 11월 ‘저PBR 기업’ 명단 첫 공개

금융위·거래소, 세부기준안 발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최소 120곳~최대 220곳 공표 예정

주가순자산비율(PBR)이 6개 반기(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 명단이 11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런 계획을 담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로 구분해 선정한다. 글로벌 산업분류체계(GICS) 11개 업종을 기준으로 최근 3년(6반기) 동안 PBR이 지속적으로 낮은 기업을 추린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대상이다. 산업마다 자산 규모와 수익구조가 달라 PBR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별 순위를 적용했다.

당초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지만 시장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최근 3년 누적’으로 조정했다. 단기 실적 부진보다 장기간 기업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 기준은 하위 20%에서 25%로 완화했다. 최근 6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직전 반기까지 추가 확인하는 예외 규정도 됐다. 일시적인 주가 반등만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다.

기업에는 공표를 피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최근 6년(12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저PBR 상태인 기업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예외 없이 공표된다. 계획만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개선계획에는 저평가 원인 분석, 목표 PBR, 실행계획, 이행평가, 투자자 소통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공표 대상은 최소 약 120개, 최대 약 220개로 예상된다.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이다. 공표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증권사 HTS·MTS에는 종목명 옆에 ‘저PBR’ 태그가 붙는다. 투자자는 기업별 재무지표 변화와 공시 내역, 최대주주 상속·증여 관련 공시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스튜어디십 코드에도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PBR 자체를 상장폐지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주 거래소 규정과 세칙 개정안을 예고한 뒤 8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올해 자본시장 처리대금 ‘5경3129조’ 최대규모

국내 증시거래·단기사채 발행 늘어

올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자본시장 관련 대금이 5경3129조원으로 202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진 데다 단기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처리 규모가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관련 대금이 5경3129조원으로 전년 동기(4경5131조원)보다 17.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일평균 처리대금도 442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82조원) 대비 15.7% 늘었다.

자본시장 관련 대금은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이 처리한 결제·원리금 지급 등의 자금 규모를 의미한다.

매매결제대금은 4경979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내주식결제대금은 436조원으로 307.5%, 주식기관결제대금은 679조원으로 234.5% 각각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채권 결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장외환매조건부채권(Repo) 결제대금은 4경5034조원으로 14.4% 늘었고, 채권기관결제대금은 3283조원으로 23.6% 증가했다.

장내채권결제대금은 240조원으로 18.8% 감소했지만, 장내주식 거래 증가폭이 이를 상쇄했다. /허정윤 기자

몽골 누비는 K-유통기업… 수도 넘어 오지까지 뚫었다

뚜레쥬르, 韓 브랜드 첫 울란굴 매장
맘스터치, 현지 QSR 시장 2위 안착
남양유업, 몽골 기업과 100억 MOU

국내 유통과 식품 기업들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넘어 지방 거점 도시와 오지까지 영역을 가속 확장하며 현지 식문화와 유통 시장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편의점과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전개되던 몽골 시장 확대가 리테일과 베이커리, 유제품 영역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이다.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매장 모델과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지 유통 기준을 새로 쓰고 있다.

베이커리와 외식 분야에서는 이미 수도를 벗어나 지방 오지를 직접 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CJ푸드빌 뚜레쥬르는 최근 울란바토르에서 약 1400km 떨어진 서북부 외곽 도시 울란굴에 '뚜레쥬르 울란굴점'을 열며 한국 브랜드 최초 진출 기록을 세웠다. 울란굴은 인구 4만여 명의 소도시지만 인근 소비 수요가 모이는 핵심 상권으로 일교차



뚜레쥬르가 몽골 서북부 거점 도시 '울란굴'에 신규 출점한 매장

/CJ푸드빌

가 크고 겨울이 길어 제품 공급과 매장 운영 난도가 높은 지역이다.

CJ푸드빌은 현지 마스터프랜차이즈 파트너사인 아티산 LLC와의 탄탄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광장 상권에 73평 규모의 카페형 매장을 구축했다.

뚜레쥬르는 현재 몽골 내 제2 도시 다르항 등을 포함해 26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10년간 현지 케이크 누적 판매량 170만 개를 돌파하며 몽골 인구 2명 중 1

명이 구매한 국민 브랜드로 성장했다.

토종 버거·치킨·피자 브랜드 맘스터치 역시 몽골 진출 3년 만에 20호점인 노민마 크로점을 돌파하며 현지 퀵서비스 레스토랑(QSR) 시장 2위로 올라섰다. 이는 글로벌 경쟁사인 버거킹을 제치고 선두인 KFC를 바짝 추격하는 성과다.

맘스터치는 버거와 치킨, 피자를 한 매장에서 제공하는 QSR 플랫폼 경쟁력과 현지 육류 소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

락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으며 현지에서 유일하게 계육 농장을 운영하는 파트너사 푸드빌 팜의 물류망을 바탕으로 내년 말 현지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또한 새마을식당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지난 5월 울란바토르에 홍콩반점 1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연내 2호점 개점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계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수출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석해 몽골 대표 식품 유통기업인 막시무스 디스트리뷰션과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수출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유업은 기존 스틱커피 중심이던 수출 품목을 국산 원유 기반의 조제분유인 임페리얼XO와 아이앰마더를 비롯해 멸균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처럼 국내 식품·유통 기업들이 몽골 시장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독보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와 효율적인 물류 생태계,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이 자리 잡고 있다. 몽골은 전체 인

구 중 35세 이하 비중이 60%를 상회할 만큼 젊은 국가로, 새로운 문화와 K-푸드를 수용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국가별 농식품 수입 규모에서도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만큼 한국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아울러 전체 인구 약 350만 명 중 40% 가량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밀집해 있어 광역 물류망 구축 부담이 적고 초기 투자 대비 수익성 전환이 매우 빠르다. 이미 현지에 뿌리내린 아마트의 6개 대형 매장을 비롯해 BGF리테일 CU의 600개 점포, GS리테일 GS25의 300개 점포 등 한국계 편의점 인프라가 든든한 유통 거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식품이 현지에서 고품질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면서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며, 편의점이나 마트의 경우 개방형 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지 특성과 맞물려 한국형 매장이 단순 판매처를 넘어 윈스톱 생활 플랫폼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롯데웰푸드, 복날 겨냥 '흑마늘 삼계탕' 선보여

'식사이론x백년가게' 협업 프로젝트
국내산 닭에 흑마늘·녹두·잡쌀 사용

롯데웰푸드가 간편식(HMR) 브랜드 '식사이론'을 통해 대구 대표 백년가게 '일월정'과 협업한 신제품 '일월정 흑마늘 삼계탕'을 출시하며 복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제품은 '식사이론x백년가게' 협업 프로젝트의 여섯 번째 상품이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점포를 말한다. 신제품은 대구에서 2대째 전통을 이어온 삼계탕 전문점 일월정의 대표 메뉴를 HMR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일월정 흑마늘 삼계탕'은 당일 도계한 100% 국내산 닭을 통째로 사용하고 흑마늘과 녹두, 잡쌀을 더해 깊고 진한 국물



식사이론x백년가게 일월정 흑마늘 삼계탕 /롯데웰푸드

맛을 살렸다.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푹고 아낸 듯한 육수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해 전문점 수준의 풍미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웰푸드는 외식 물가 상승과 이른 폭염으로 간편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초복과 중복, 말복 등 복날 시즌을 겨냥해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프리미엄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식사이론은 앞서 '형제송정 떡갈비', '신아치킨 닭강정', '타향골 순살감자탕', '해운대원조할매국밥 소고기무국', '오뎅 식당 부대찌개' 등 전국 유명 백년가게와 협업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HMR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백년가게가 오랜 시간 축적한 전통의 맛을 보다 많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갖춘 다양한 간편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냄새 잡는 세탁세제 인기… GS샵 판매 급증

지난해보다 약 100% 증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무더위까지 이어지면서 탈취 기능을 강화한 세탁세제가 흡소핑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GS샵은 올해 6~7월(6월 1일~7월 26일) 세탁세제 주문액이 5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25억원)보다 약 10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얼룩 제거와 함께 탈취, 실내 건조 기능을 강화한 제품의 판매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한 제품은 '비트 몬스터팻'이다. 비트 캡슐세제 가운데 효소 함량을 높여 세척력을 강화한 제품으로, 지난 4월 말 GS샵에서 출시된 이후 네 차례 연속 매진됐다. 6~7월 주문액은



탈취 성능을 강화한 기능성 세제가 흡소핑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GS샵

약 22억원으로 같은 기간 세탁세제 전체 주문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소유진쇼'에서 판매한 '비트 몬스터팻 10X냄새케어'는 1시간 동안 6000세트 이상 판매돼 주문액 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방송한 '비트 몬스터팻 10X샴푸와워'도 1시간 동안 5000세트가 판매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오투기x스낵24 '카레콘볼' 출시

오투기가 BaaS(Business as a Service) 플랫폼 기업 위편과 협업해 스낵 신제품 '카레콘볼'을 출시했다.

카레콘볼은 '오투기 카레'의 시즈닝을 적용한 볼 형태의 스낵으로, 순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30g 소용량으로 제작해 사내 탕비실 등 기업 환경에서 간편하게 보관하고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업은 위편의 B2B 유통망을 활용해 기업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은 위편을 통해 기업에 공급된다. 일반 소비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스낵24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 개인 편의점과 구내식당 등 오프라인 판매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배스킨라빈스, 여름시즌 한정 디저트 공개

'홀라홀라 코코넛' 등 라인업 완성

배스킨라빈스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크림과 음료, 빙수 등 시즌 한정 디저트 라인업을 확대하며 여름 수요 공략에 나섰다. 트로피컬 콘셉트의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음료에 이어 직영점 전용 '슈가케인 빙수'까지 선보이며 디저트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배스킨라빈스는 무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시즌 플레이버로 '홀라홀라 코코넛'을 비롯해 '트로피컬 콜라다', '블루 서퍼 비치' 등을 출시했다. 음료 메뉴도 강화해 비타민C를 함유한 슬러시 음료 '비타 프로스티'와 망고팝핑, 트로피컬 티, 수박 등 다양한 플레이버의 블라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와그자 빙수'는 일반 빙수와 컵빙수 형태로 선보이고, 여기에 직영점 전용 신메뉴 '슈가케인 빙수' 2종을 추가해 여름 디저트 라인업을 완성했다.

새롭게 선보인 '슈가케인 빙수'는 부드러운 우유 빙수에 과일과 크림, 솜사탕 등 다양한 토핑을 더하고 사탕수수 추출물을 활용해 깔끔한 단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1~2인이 즐기기에 좋은 크기로 기획됐다.



배스킨라빈스 시즌 디저트 /배스킨라빈스

'딸기 마스코포네 슈가케인 빙수'는 생 딸기와 딸기 시럽, 마스코포네 치즈폼을 층층이 쌓고 솜사탕을 올려 달콤한 풍미를 살렸으며, 빙수 안에 담긴 비스킷 크림 블로바삭한 식감을 더했다. '망고 바나나 슈가케인 빙수'는 제주산 생 애플망고를 올린 망고 빙수 베이스에 망고 보보렐과 바나나폼, 바나나 브릴레, 솜사탕을 더해 풍성한 맛과 비주얼을 구현했다.

'슈가케인 빙수'는 배스킨라빈스 워크샵, 청담, 강남대로, SPC스퀘어, 파르나스몰, 부산서면중앙, 파라다이스시티 등 일부 직영점에서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50만잔 팔린 CU 리얼 스무디, 전국 확대

연내 500여곳 운영

CU의 즉석 음료 '리얼 스무디'가 누적 판매량 50만 잔을 돌파했다. CU는 리얼 스무디 운영 점포를 연내 전국 500여 곳으로 확대하며 즉석 스무디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얼 스무디는 고객이 전용 냉동 컵과 일을 전용 머신에 올리면 약 1분 만에 완성되는 즉석 음료다. 급속 냉동한 과일을 사용해 원물의 맛을 살렸으며, 인공첨가물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리얼 스무디는 믹스베리, 딸기바나나, 수박 등 5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입 이후 계절과 관계없이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며 누적 판매량 50만 잔을 넘어섰다. 성수디저트파크점에서는 하루 약 300잔이 판매되기도 했다.

CU는 지난 6월 제주 지역에도 스무디 머신을 도입하며 전국 운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달 기준 운영 점포를 300여 곳으로 확대했다. 연내에는 전국 500여 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상습갑질’ 기업 과징금 2배 물리고, 담합 반복 시 영업정지

공정위, 하도급법·가맹사업법서
과징금 가중한도 최대 100% 상향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대·중소 간 힘의 불균형 해소 과제

정부가 대기업 원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배로 늘리는 한편,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약자인 ‘을(乙)’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과 프랜차이즈 시장의 정보 비대칭 속에서 중소기업자와 가맹점주가 겪어온 고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습 위반 기업에 강력한 경고…과징금 가중 한도 100%로 일제히 상향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 질서를 반복적으로 어지럽히는 기업에 대한 처벌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뉴시스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분야 모두에서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배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 시장에서 상습적인 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하도급 시장에서는 중소 부품·제조업체들의 숙원이었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비용까지 확대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로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 변동률과 기준 지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급등한 공장 전기료나 가스비 부담을 대기업 원사업자가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의 마진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다.

부실 공사 여파로 위기감이 고조된 건설 하도급 시장의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공사 금액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 예외 사유(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등을 전면 삭제했다. 원사업자가 과산하더라도 중소 부품·건설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한 것이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피해 수급사업자’도 다른 업체의 법 위반 증거를 최초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가맹 시장에서는 예비 창업자와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투명성’ 강화에 집중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및 가맹점 수 변경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3개월(분기별)로 대폭 단축해 시장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업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른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여부와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는 물론, 중도 폐업 시 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까지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직영점 의무 운영(1+1) 제도’의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주경기 위원장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 역점… 담합 반복 시 등록취소 추진”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참석해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하여 엄중 조치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범위반역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별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와의 긴밀한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과징금 한도 상향은 공포 즉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일부 행정절차 조항은 올해 8월 4일 공포 즉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구축 속도

기후부, 실무협의체 착수회의 열어
공급선로 구축 신속처리 방안 논의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 대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공급선로 구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실무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기후부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한전이 호남권 반도체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해 ‘1단계 공급선로 적기 구축’을 골자로 마련한 잠정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잠정안을 구체화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밀착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첫 착수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전력공급 방안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1단계 공급선로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필수적인 지방정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역(지방)환경청의 인허가 협조 사항이 집중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사항 조율과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상시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본부 전력망정책과

를 비롯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이 대거 참석하며, 지방정부 측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장과 도시계획과장, 광산구 및 장성군 건설·도시계획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한편에서는 전력계통부서장과 국가기간방건설사업, 민간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혁신팀장과 SK하이닉스 CR정책부사장, 설비인프라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실무 조율에 나선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실무협의체는 기관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제거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익위, 복합민원 발생 시 즉각 기관 조율

‘적극행정국민신청’으로 지연 해결

공공기관 간의 책임 공방으로 장기간 방치되던 복합민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잇따라 해결됐다. 권익위는 이를 계기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해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기관 간 조율에 착수하는 등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행정기관이 얽혀 처리가 지연되던 복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과천시민광장 주변 도로의 차선규제봉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피해 보상 건이다. 해당 도로는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점용자인 과천시사관리소, 과천시 간의 관리 주체가 모호

해 5차례나 책임 논쟁만 반복되며 보상이 지연됐다. 그러나 권익위가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적극 조율한 결과, 과천시와 과천시관리소가 신속히 피해 보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철도 부지 내 위험 수목으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 민원도 해결됐다. 거대 수목으로 사유지 담장이 파손됐음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의 관리 규정이 불분명해 방치되던 건이다. 권익위의 조율로 세 기관은 다음 달까지 수목 제거를 완료하고, 차기 계약 시 관리 범위를 명문화하도록 ‘조경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처리기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관계기관 간 조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환경공단, AI로 ‘해파리 발생’ 감지

‘해파리 폴립 관리 플랫폼’ 구축 착수
안전사고 예방·산업 피해 감소 기대

해양환경공단이 ‘인공지능(AI) 기반 해파리 폴립(초기 성장단계) 관리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해파리 대량 발생의 근본 원인인 폴립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탐지·관리하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까지 추진하는 국내외 최초의 사례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AI 기반 영상·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폴립 실시간

간 모니터링 및 자동 탐지·정량화 ▲GIS 기반 서식지 지도화 ▲정책 의사결정 지원 ▲발생·대응 시나리오 자동 생성 등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을 수중드론과 AI 분석 기반으로 전환해 조사 효율을 높이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어업·양식업·발전소 등 관련 산업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해파리 대량발생을 국가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고 대응체계를 강화



해양환경공단이 ‘AI 기반 해파리 폴립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환경공단

해 왔다. 공단 역시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 위탁으로 해파리 폴립 제거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잠수 인력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조사하는 방식은 넓은 해역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파리의 초기 성장단계인 폴립은 한 개체가 최대 5000마리의 성체로 증식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제거할 경우 성체 발생량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K-스마트폰 유럽 점유율 확대 지원

1억 달러 규모 무역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우리 기업의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돕기 위해 1억 달러(약 8000만 유로)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번 지원은 무보가수입자의 매입채무 유동화를 돕는 리버스 팩토링(Reverse Factoring) 방식을 도입해 수출 기업을 도운 첫 번째 사례다.

무보는 스페인 통신사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구조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금융기관(은행)은 무보가 제공하는 무역보험을 담보로 삼아 수입자인 스페인 통신사의 대금 결제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자는 유동성 부담을 대폭 덜어내면서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제품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출 대금을 조기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보 측은 이번 지원이 최근 중국 등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스페인 모바일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지원사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세계 최초!

재밋고~
맛있는!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

VS



07.24(금)~08.16(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주최, 주관



*오리온



(재)마포문화재단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투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공연문의

02-766-9001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59.4%… 일부 대학 기준 미달

교육부, 의무화 전보다 13.2%p↑
한림대·순천향대, 기준 못 채워
비의대 14개 학과도 기준 미준수

2026학년도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4%로 집계됐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최종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대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234명으로 59.4%를 차지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48명도 포함됐다.

이는 의무선발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 46.2%보다 13.2%p(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의·치·



교육부 전경.

한·약학 계열의 경우 일반 권역 40%, 강원·제주권 20%다.

그러나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원권인 한림대는 입학생 79명 가운데 지역인재 13명

을 선발해 비율이 16.5%에 그쳤다. 법정 기준은 20%로, 최소 16명을 선발해야 했다.

충청권 순천향대는 입학생 113명 가운데 4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39.8%를 기

록했다. 법정 기준인 40%, 46명에 1명 부족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의대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는 각각 의무선발 인원 2명을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원광대는 2명 중 1명, 경북대는 3명 중 1명을 선발했다.

의대를 제외한 계열에서는 지역인재의 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가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상지대 한의예과는 입학생 66명 가운데 지역인재 12명을 선발해 비율이 18.2%에 머물렀다. 강원권 한의학 계열의 의무선발 비율은 20%다.

간호학과에서는 김천대와 동양대, 위덕대, 가톨릭상지대, 극동대, 유원대, 을지대 성남·의정부캠퍼스, 중원대, 강동대, 대원대, 세한대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전

북대 법학전문대학원도 법정 비율 15%에 못 미치는 14.8%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 28개 학과가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교육부는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지역 및 학과별 모집 여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열·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매년 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방학동에 35층·2800가구 들어선다

방학동 638·641 일대 재개발 확정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8·641 일대에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방학동 638·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구역에는 방학동 638 일대 약 1800가구, 641 일대 약 990가구 등 모두 약 2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지역은 도봉산 자락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도지구와 인접해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2021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높이 제한과 사업 규모를 둘러싼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2025년 638 일대와 641 일대를 각각 별도 구역으로 나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두 구역의 경관과 기반시설, 보행로를 연계해 개발하도록 계획했다. 용도지역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방학동 638 일대에는 용적률 270% 이하, 방학동 641 일대에는 277% 이하를 적용하며, 두 구역 모두 최고 35층·높이 110m 이하로 계획됐다.

두 구역 사이 도당로17길에는 높이와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5개 층 높아지고, 계획상 남향 세대 비율은 약 90%에서 100% 수준으로 늘어난다.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 방향의

조망과 보행 동선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공원·열린마당을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경계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 계획을 반영해 도당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시루봉로 변은 건축물 높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단지 경계부에는 중·저층 건물과 외부마당을 조성한다.

방학동 641 일대에는 지상 연면적 3500㎡ 규모의 실버케어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높이 제한을 받아온 방학동 노후 저층주거지가 동북4산과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내년부터 학생배치지표 개편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학생 배치지표를 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사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35~36명 수준인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7학년도 35명,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 3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배치지표를 계속 낮춰 왔지만,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유지해 일반고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배치지표도 재학 비율에 따라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다

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 모두 학급당 22명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22명, 40% 이상은 20명, 60% 이상은 18명을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편된 학생배치지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서울형 학생·학교 배치 3.0 기본방향’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배치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북, 日 나라현과 지방정부 협력모델 구축

문화·관광·AI 교류 ‘맞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본 나라현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를 만나 문화·관광과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27일 경북도를 방문한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를 접견하고 관광 활성화와 경제 교류,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양 지역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경북도의 AI 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도와 나라현은 각각 신라와 일본 고대문화의 중심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부산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지난 5월 안동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교류 분위기를 지방정부 협력으로 이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27일 경북도를 방문한 야마시타 마코토 일본 나라현 지사와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나라현은 경북과 역사·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지역”이라며 “문화·관광은 물론 AI와 디지털 관광, 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한일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 지사는 “양 지역의 문화유산과 첨단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동아시아 공동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10월 열리는 전통주 문화대축제와 문화예술 교류전에 나리현 관계자를 초청하고, 도시재생 사례 공유 등 교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기장군 일광바다축제 31일 개최

기장군이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일광해수욕장에서 ‘제1회 일광바다축제’를 개최한다. 기존에 별도로 열리던 ‘기장갯마을축제’와 ‘일광낭만가요제’를 하나로 통합한 축제다.

일광해수욕장은 금빛 모래가 2km에 걸쳐 펼쳐진 반원형 해안으로,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어린이 동반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동해선 일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

첫날인 31일에는 후릿그물당기기, 맨손 고기잡이, 바닷속 보물찾기 등 바다 체험 행사로 시작해 성황제와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식이 이어진다. 저녁에는 미스트롯 출연 가수 채윤, 최지예, 이소나가 출연하는 ‘일광 힐링 콘서트’가 열린다.

8월 1일에는 조개잡이 체험과 비치 프린지 공연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 가요제 예선과 초대 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가요제 본선과 초대 가수 공연에 이어 오후 9시 폐막식 후 불꽃축제로 마무리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안양시, 619억 투입해 미래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9건 유치

안양시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9건을 유치하며 총 6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AI 기술을 행정을 넘어 교통·안전·복지 등 도시 전반에 적용해 미래형 첨단도시 조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AI 관련 핵심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나선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올해 신설한 ‘AI 전략국’이 있다. 시는 AI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축해 부서별로 분산됐던 사업을 통합하고 중앙부처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교통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Sp

rint)’을 통해 시내버스에 엠티AI를 적용한다. 승객 수와 주변 환경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고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운전석이 없는 레벨4(Lv4) 자율주행 셔틀을 관악역~안양예술공원 구간에 새롭게 운행한다.

또 AI 기반 주차 수요 예측과 음성비서 기능을 활용한 탄력 주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라이더(LiDAR) 기반 공간 인식과 AI 위험 분석을 결합한 교차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로 위험을 사전에 감지·대응할 예정이다. 도시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실종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동안구에서 만안구까지 확대하고, 드론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 정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 합류 구간의 과속·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기술과 재난 예측·대응 시스템도 도입해 스마트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전북은행-현대차,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전북은행은 현대자동차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서비스와 차량구매를 연계한 고객 혜택을 확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북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북은행



우리은행, 군부대 위문금 1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 및 에너지링크 2000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 두번째)과 최영길 해병대 제2사단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스마일게이트, '슈퍼 스피드런 마라톤' 성료

스마일게이트 히말스튜디오는 '2026 슈퍼 스피드런 마라톤 Lite'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누적 시청자 수 8만5674명, 총 시청 시간 2만1540시간을 기록했다.

/스마일게이트



남동발전, '바다사랑지킴이사업' 발대식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7일 경남 고성에서 '2026년 뉴-KOEN 바다사랑지킴이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120여 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향후 5개월간 해안가 환경정화, 마을 꽃길 조성, 재활용품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국남동발전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원천기술과장 김동준(스마트인재양성성과장 최진혁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이강우)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전국부 편집위원(국장급) 김진환

부음 ▲ 권영임(나이스 M&A 대표) 씨 별세, 향년 56세. 김중석(전 SK증권 지점장) 씨 부인상 = 28일 오전, 여의도 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오전 0시. (02)3779-1526

삼성전자,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16개 제품 수상

생활가전 14개·모바일 2개 수상 AI 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 고평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과 고효율 설계를 적용한 생활가전·모바일 제품을 앞세워 '2026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생활가전 14개와 모바일 2개 등 총 16개 제품이 '2026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AI 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적용한 제품들이 소비자와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EHS 히트펌프 보일러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원바디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비스포크 AI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AI 스팀 울트라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비스포크 AI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후드일



'2026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

/삼성전자

체형 인덕션 ▲인버터 제습기 등 총 14개 제품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과 '비스포크 AI 김치냉장고'는 소비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기상'까지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하는 고효율 난방 솔루션으로, 고효율 열교환기와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해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을 약 5배 높였다. '비스포

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는 AI·모션 바람과 쾌적제습 기능을 탑재했으며, 특히 기술인 쾌적제습을 통해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제습 기능 대비 최대 30% 절감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프리히트 방식의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해 '쾌속 코스' 기준 69분 만에 세탁과 건조를 완료하며, AI 세제자동투입과 스마트싱스 AI 절약 모드를 통해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현대차,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시동

ST1 기반 임산부 특화 차량 기증 장애인 등 대상·지역 확대 계획

현대자동차는 27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신규 사회공헌 프로젝트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차량 기증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임산부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 차량을 개발·지원함으로써 필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산시는 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 증가 추세에도 함께출산율이 전국과 충남 평균을 상회하는 특성을 고려해 1호 프로젝트 도시로 선정됐다.

이번에 기증한 차량은 현대차의 전동화·목적기반차(PBV) ST1을 기반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임산부 특화 차량이다.

ST1은 적은 소음과 진동, 저상형 차체, 높은 실내 높이 등을 갖춰 쾌적하고 안전한 탑승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차와 서산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현대자동차는 지난 27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차량 기증식을 열었다(왼쪽부터) 전현철 현대차 사업개발&지속가능경영실장과 이완섭 서산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애경산업·동성제약, 산학연 파트너십 확대

푸단대학 장강연구원 연구개발 협력

태광그룹 계열 애경산업과 동성제약이 글로벌 산학연 파트너십을 다지며 뷰티·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애경산업과 동성제약은 중국 푸단대학교의 장강연구원과 '피부과학 및 뷰티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피부과학과 화장품, 의약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 역량, 제품 개발 경험 등을 공유하고 기술 사업화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피부·두피·모발 과학 공동연구, 국가·지역·인종별 피부·두피 데이터 연구, 신규 원료·소재·제형 및 전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초 연구, 임상시험,

연구성과 특허 출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확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동성제약·장강연구소는 생산시설,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 가능성도 검토한다. 개별 협력사업의 참여 기관과 역할, 비용, 연구성과, 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조건 등은 향후 별도 계약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태광그룹은 애경산업·동성제약의 제품과 기술에 장강연구원의 연구 네트워크 등이 더해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강연구원은 푸단대학교가 상하이 장강과학단지에 설립한 산학협력 거점이다. 대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 창업, 사업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LB그룹, 10월 '유럽중앙학회 학술대회' 참가

리보세라립 등 연구성과 발표

HLB그룹이 글로벌 학회에서 주력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높인다.

HLB그룹은 오는 10월 23~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6 유럽중앙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리보세라립과 라리푸그라티닙 관련 연구 초록 3건이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신속 구두 발표 세션에 기존 치료를 받은 전이성 흉선상피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립 연구자 주도 임상 2상 연구 결과가 선정됐다. 신속 구두 발

표 기회는 학술적 중요성과 임상적 파급력이 높은 연구에 소수로 부여된다.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리보세라립·캄렐리주맙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3상(CARES-310)의 하위 분석 결과도 포스터 발표한다. 초기 항생제 사용이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다.

또 라리푸그라티닙의 임상 1/2상(ReFocus) 사후(Post-hoc) 분석 결과도 이포스터로 채택됐다. 이 연구는 이전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점막·피부 이상반응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J푸드빌, '올리페페' 레드닷 어워드 본상

올리페페(Olipepe)가 이탈리아 현지 감성을 담아낸 브랜딩으로 세계인의 눈도장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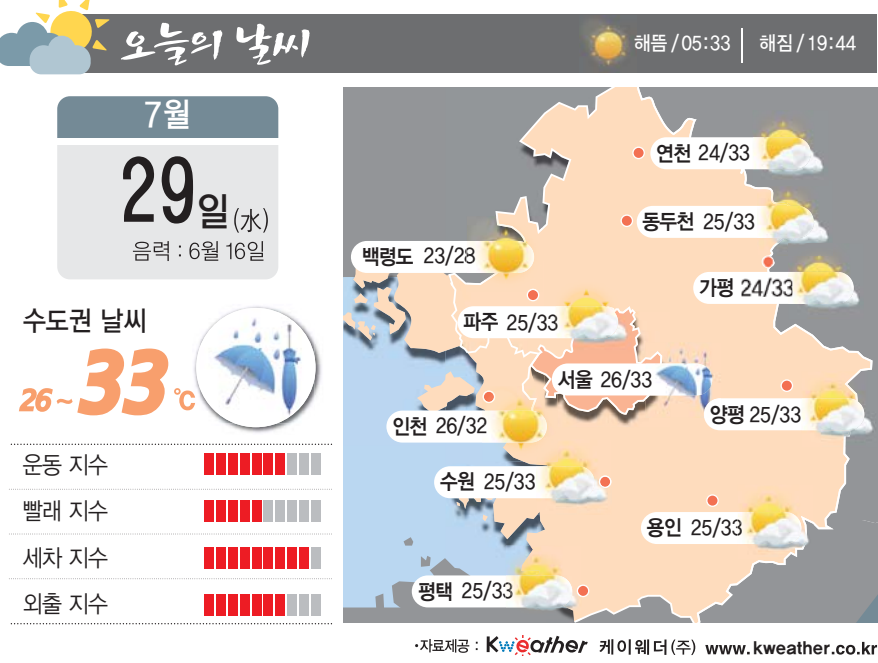
CJ푸드빌의 이탈리아인 비스트로 올리페페가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디자인 시상식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올리페페는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 아이덴티티, 커뮤니케이션 완성도 등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대통령의 부동산 1타 강의 ‘이재명식 매매법’



기고
최웅주
관악구의원

치열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1타 강사’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은행이 안 빌려주면 집주인이 빌려주면 된다’로, 이름하여 ‘주담대 매매법’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부터 넘겼다. 대신 자신들을 근저당권자로 올리고 채권최고액 18억원에 가까운 근저당을 잡았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남은 잔금과 똑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나중에 받고 집부터 넘긴 참신한 구조였다. 은행이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은행이 된 셈이다.

독창적인 매매법이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뒤에는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곤란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 입장으로 보면 기존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거나 거액의 잔금도 당장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서 천재적인해법을 찾아냈다. “등기부터 넘기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대신 근저당은 잡겠습니다”라고 말이다.

보통 국민이라면 어떨까.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달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유한 신념처럼 밀어붙인 엄격한 부동산 금융규제를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우회했다. 대출규제가 돈 없는 사람 길은 막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담보가 충분해도 근로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어도 일단 2억원이다. 국민에게는 은행 문을 쾅쾅 잠가 놓고 대통령의 집을 살 사람에게서는 17억원 안팎의 ‘집주인 사채’가 활짝 열리게 됐다. 이보다 생생한 내로남불 시범수업이 또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시장의 학습 속도다. 대통령 사례가 알려진 직후 강남권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소득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전문직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집주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송파·서초에서도 매도자가 근저당을 잡고 잔금을 수년 뒤에 받겠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거래를 대통령이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규제 우회법을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이 설명서를 펼쳐 보이자 시장은 곧바로 응용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대통령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강력한 신호를 줬다. 대통령이 사실상 ‘집주인 주담대’에 봉황이 그려진 인증마크를 붙여준 꼴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하고 대출을 죽이면 투기가 잡힐 것처럼 말해 왔다. 정부는 비장하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의 거래에서는 달랐다.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한 거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평범한 국민의 세상 속에는 17억원을 외상으로 딱하고 내줄 수 있는 집주인이 없다. 가족잔스도 쌓아 놓은 현금도 없는 사람은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정책의 부작용을 참신한 전략으로 돌파해 놓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재명표 부동산 1타 강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집주인에게 빌리면 된다. 단, 17억원을 빌려줄 집주인은 각자 알아서 구해야 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인가.

/관악구의원

배터리 3사, 적자 축소만으로 부족하다



기자수첩
원관희
(산업부)

한동안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을 믿고 생산능력을 늘려온 국내 배터리 업계는 예상보다 길어진 수요 둔화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데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 모두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중심에서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다. 특히 배터리 3사는 자동차업체와의 협력을 청산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던 합작 공장을 매각하거나 미국 공장의 생산 라인을 에너지 중심으로 변경했다. 배터리 3사의 사업 구조 재편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최근 전기차 출하가 조금씩 회

복되고 있는 데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데이터센터용 배터리의 수요가 늘면서 기나긴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 전분기 2078억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삼성SDI와 SK온도 ESS 판매 확대와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 회복에 힘입어 1조원대의 적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3사가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느냐 아직 반등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을 들여다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분기 영업이익에는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2410억원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1277억원의 영업손실이다. 흑자로 돌아섰지만 배터리 판매만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삼성SDI는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백업유닛(BBU) 판매를 늘리며 전기차용 배터리 부진에 대응하고 있다. SK온은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조지아 공장 공급 확대와 유럽 출하 회복을 바탕으로 손실 축소에 나서고 있다. 당장은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최대 과제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할 수는 없다.

ESS와 데이터센터용 배터리로 수요처를 넓히고 일부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작업이 전기차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의 발걸음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

배터리 3사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9일 (음 6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거만한 생각은 독입니다. 60년생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72년생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84년생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49년생 세력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주위가 압도됩니다. 61년생 여행을 조심하세요. 73년생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85년생 별 갈등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것 입니다.



50년생 너무 강한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62년생 주변인들과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74년생 예의를 바르게 갖추고 생활하세요. 86년생 행동 가짐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51년생 얼마전부터 애 타게 찾는 게 있습니다. 63년생 지성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75년생 걱정시켰던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87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2년생 지금은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64년생 차분한 운기가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76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88년생 기력에 넘쳐 있는 하루입니다.



53년생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65년생 취미나 능력을 살려서 부업에도 전해보세요. 77년생 조그마한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89년생 가까운 곳에 여행을 떠나면 길합니다.



54년생 본업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66년생 과하면 역효과를 부르니 주의 하세요. 78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90년생 중요한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55년생 금전계약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67년생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79년생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56년생 평소와는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8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80년생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세요. 92년생 적극적으로 어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7년생 커뮤니케이션 운이 상승합니다. 69년생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81년생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93년생 마인트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58년생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0년생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2년생 다소 힘든 하루가 예상됩니다. 94년생 거짓말은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59년생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71년생 경거망동을 삼가하세요. 83년생 알게 된 지 얼마 안된 사람과는 어느정도의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 9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조호리산, 이기는 방법

산속의 호랑이는 가장 강한 존재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며 산세와 지형을 잘 알고 있다. 그런 호랑이와 정면으로 맞붙는 것보다는 병법에서는 호랑이와 산속에서 싸우지 말라고 한다. 여러 방법을 써서 호랑이를 평지로 유인한 뒤 싸우라고 말한다. 36계 가운데 제15계는 조호리산調虎離山이다. 호랑이를 산에서 끌어내라는 뜻이다.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상대방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와 조건을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 인생의 싸움에서 패하는 많은 경우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싸워야 할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강점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맞서려고 한다.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과 말로 싸우고, 자본이 많은 사람과 돈으로 경쟁하려 한다. 결과는 뻔하다. 산속에서 호랑이와 싸우는 셈이기 때문이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격 경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자본과 물량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나 전문성, 혹은 관계 밀착형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다른 재능과 환경이 있다. 누군가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누군가는 분석과 연구에 강하다. 꾸준함이 강점인 사람이 있고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산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다. 평리학에서 좋은 운을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분야에서 억지로 경쟁하면 에너지만 빼앗기고 자신의 강점이 살아나는 자리에서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출판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6	8	9	2	7	2	1
1	7	2	6	9	2	6	9	8
9	2	8	1	8	7	9	6	2
8	9	9	2	1	6	2	7	8
2	6	7	9	8	2	1	9	5
6	1	2	7	2	9	6	8	9
7	8	9	9	2	9	1	2	6
2	9	9	2	6	1	8	8	7
6	2	1	8	7	8	9	9	2

9	9	6	1	8	8	2	7	2
7	2	8	2	9	9	1	6	8
2	8	1	2	6	7	9	9	8
1	7	9	9	2	2	8	8	6
8	6	9	8	1	9	2	2	7
8	2	2	6	7	8	9	1	9
2	8	8	7	9	1	6	2	9
6	9	7	8	2	2	8	9	1
9	1	2	9	8	6	7	8	2



몽골 누비는
K-유통기업
오지까지 진출
L1

metro®

Life

공정위
담합 반복 기업
시장퇴출 추진
L2



춤추던 로봇, 공장·가정으로... 실전 데이터로 몸집 키운다

중국 첨단산업지도

⑥ 휴머노이드 로봇

지난해 설(춘제)에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16대가 중국중앙TV(CCTV) 춘완 무대에서 손수건을 돌리며 전통춤 양거(秧歌) 군무를 선보였다. 사람처럼 호흡을 맞춰 춤추는 로봇에 세계가 놀랐다. 올해 설에는 네 개 기업의 로봇이 함께 무대에 올라 후방 공중제비를 들고 3m 넘게 솟구치는 등 한층 고난도의 무술 동작을 구현했다. 무대를 누비던 로봇은 곧 생산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8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엿새 동안 중국 장시성 난창의 톈치테크 공장으로 출근했다. 태블릿 품질검사 라인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전 과정도 생중계됐다.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여겨졌던 중국 휴머노이드가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완성도가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단 공장가정에 로봇을 투입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오류를 고치며 성능을 끌어올리는 중국식 전략이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춤추던 로봇, 생산라인으로

애지봇은 G2 로봇 8대를 난창 공장의 태블릿 품질검사 공정에 배치했다. 로봇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일정에 맞춰 엿새 동안 총 64시간을 일했다. 이 기간 태블릿 1만 7625대를 검사했으며 작업 성공률은 99.99%로 집계됐다.

작업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생중계 도중 로봇과 컨베이어 사이의 신호가 어긋나 자재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장 인력이 즉시 대응해 생산라인은 멈추지 않았고 오류 원인과 대응 과정은 학습 데이터로 축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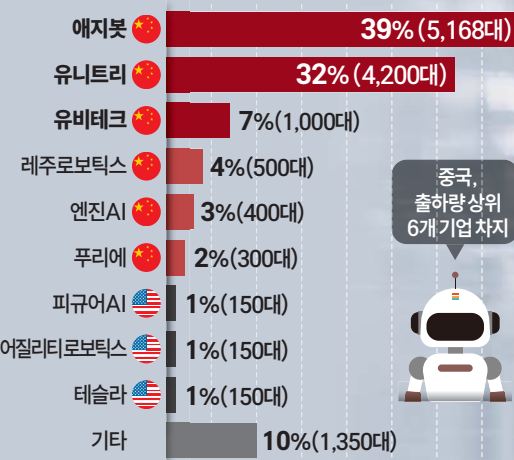
생산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애지봇은 생중계 마지막 날 1만 5000번째 로봇을 출하했다. 지난 3월 누적 생산량 1만대를 넘어선 지 석 달 만이다.

다른 기업들도 생산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겔봇의 S1은 CATL 배터리 공장에서 양팔로 50kg의 물체를 옮기며 8시간 동안 작업하고 있다. 광저우자동차그룹 계열사는 후이룬커지와 연간 1만대 규모의 생산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레스는 충칭 슈퍼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파이'를 시험 투입했다.

중국 정부도 실증기반을 넓히고 있다. 공업정보화부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26년 말까지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응용 사례를 100개 이상 발굴하고 1만대급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5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은 약 1만 3000대로 집계됐다. 애지봇이 39%를 차지해 1위에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자료/옴디아

중국 애지봇 휴머노이드 로봇 'G2'가 난창 공장의 태블릿 품질검사 공정에 배치돼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애지봇 유튜브 캡처

무대 누비던 中 로봇, 생산 현장으로
애지봇 G2, 태블릿 품질검사 공정 배치
작업 성공률 99.9%...현장 데이터 축적
中 정부, 로봇 응용사례 확대로 보조 맞춰

가정용 로봇 가격 인하... 보급장벽 낮춰
교육·교감기능 등 앞세워 초기수요 공략
변수 많은 가정 환경 데이터 확보 주력

유니트리 상장 추진 등 로봇주 '훈풍'
中 휴머노이드 출하량 700% 증가 전망
현장 데이터 학습해 초기시장 장악

올랐고 유니트리가 32%, 유비테크가 7%로 뒤를 이었다. 출하량 상위 6개 기업은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 유니트리는 실제 출하량이 5500대를 넘어 옴디아 추정치보다 많다고 반박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초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장을 넘어 가정으로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소비자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며 가정용 로봇 보급의 장벽으로 꼽히는 가격도 낮추고 있다.

유니트리는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R1의 가격을 3만 9900위안(약 867만원)에서 2만 9900위안(약 649만원)으로 인하했다. 노에티스는 지난해 10월 키 94cm, 무게 12kg의 소형 휴머노이드 '샤오부미'를 9998위안(약 217만원)에 출시했다. 휴머노이드 가격이 1만위안 아래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들 로봇은 아직 세탁이나 청소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교육과 놀이, 교감 기능을 앞세워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장저위안 노에티스 대표는 "간병이나 가사를 못 하면 우선 아이와 놀아주고 코딩·영어 가르치는 '정서적 가치'부터 준다"고 말했다.

실제 주거공간을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국가시계는 가정용 로봇 '스광 S1' 100대를 우한 광구의 인재아파트에 투입해 빨래 개기와 식기 정리 등을 시험하고 있다. 현재 한 대당 20만위안(약 4347만원)인 가격을 자체 생산공장 구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위안(약 2173만원) 아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작업 환경과 변수가 공장보다 복잡한 가정에서는 다양한 물체와 사람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국가시계는 우한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가정 내 작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니트리 IPO에 돌아온 로봇주

현장 투입과 생산 확대는 중국 자본시장의 성장 기대도 끌어올렸다. 유니트리는 지난 7월 2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커황반 상장 등록 효력이 발생했다. 신주를 팔아 42억위안(약 9127억원)을 모으는 'A주 인간형 로봇 1호주'다.

상당수 휴머노이드 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로 적자를 내는 가운데 유니트리는 2025년 매출이 17억위안(3694억원)대로 늘었고 수익성도 흑자권에 진입했다.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지난 7월 3일 위더세보와 터프그룹, 와룡전구 등 로봇 관련 40여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터프그룹 주가도 한 주 동안 18.35% 올랐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고평가 우려도 커졌다. 터프그룹의 동태 주가수익비율(PER)은 7월 초 기준 49배까지 상승했다. 이후 일부 로봇 관련 종목이 하루 만에 10% 넘게 하락했고 여러 상장사는 로봇 사업의 매출 비중과 단기 실적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위험 공시를 냈다.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실제 실적보다 빠르게 주가에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시장에 먼저 내놓고 완성한다

단기적인 주가 과열 우려와 별개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성장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26년 중국 휴머노이드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2만 8000대에서 5만대로 높였다. 2030년 출하량은 44만 6000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트렌드포스는 2026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5만대를 넘어 전년보다 7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5만대는 시장 전망이지 테슬라 생산량이 아니다. 둘은 다른 숫자다. 테슬라 옵티머스 오히려 초기 양산이 느리다.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힘은 개별 로봇의 완성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춘완 무대에서 춤추고 무술을 선보였던 로봇을 생산라인과 거실에 먼저 투입하고 그곳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성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기술 시연에 머물렀던 경쟁도 현장 데이터와 생산 규모, 부품 공급망을 겨루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시장에 먼저 내놓고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초기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생산현장 로봇 겔봇 'S1'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유니트리 'R1'

메트로 한줄뉴스



▲홀란·로드리 없지만...맨시티, 정예 멤버로 팀 K리그·AT마드리드와 격돌 /사진 뉴시스
▲대한체육회 신입 사무총장에 김대년 체육회 선거자문위원장 내정

▲포가차르, 투르 드 프랑스 3연패...5번째 우승으로 최다 타이
▲카보베르데 카브랄의 아르헨전 '환상골',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골'

▲'트럼프 밀착 논란' FIFA 회장, 비판 여론에 "증오와 가짜 소문"
▲임시일지라도...포켓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을 원한다

AI·BIO 융합기술로 건강한 미래의 답을 찾다

LG는 AI와 BIO기술의 융합을 통해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